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제149호

2025.05.15.(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중국·정책

중국, 핵심광물 밀수 단속 통해 수출통제 강화

중국·자동차

중국 자동차 부품업체, 태국 진출 급증... 일본 공급망 대체하나

캐나다·광물

호주 리오틴토社, 캐나다 알루미늄 정련소에서 갈륨 추출 성공

칠레·광물

중국, 칠레서 양극재 공장 건설 계획 철회

주간 이슈 포커스

미국·희토류

미국, 최고 등급 네오디뮴 매장지 발견

원자재 뉴스 PLUS

에너지

OPEC+ 증산 결정, 美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영향받아

II. 월간 공급망



소재·부품·장비 품목 심층분석 - 엔코더

I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美 에너지·기후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대내외 영향과 전망

IV. 공급망 소식통



① 인사이트 150호 구독자 만족도 설문조사 이벤트(~5.23.)

② 2025 KOTRA 해외수주협의회 제51차 수요포럼(~5.16.)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중국, 정책 중국, 핵심광물 밀수 단속 통해 수출통제 강화

- ☐ 중국 상무부는 5.9일 선전에서 열린 회의에서 갈륨·게르마늄·안티모니·텅스텐·일부 희토류 등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밀수 단속에 나서겠다고 발표
 - ☞ 동 회의에서는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가 시행된 이후, 일부 외국기관과 중국 내 개인 사업자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결탁하여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
 - * 이후 5.12일, 중국 상무부는 관련된 부처들과 함께 ‘전략광물 수출에 대한 산업망 전반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여, 전략광물의 채굴·제련·가공·운송·제조 등 각 단계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
 - ☞ '25년 1분기 중국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안티모니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57% 감소하였으며, 게르마늄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중국 정부는 ▲허위보고, ▲은폐, ▲끼워넣기 밀수*, ▲제3국 경유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며, 근시일 내 핵심광물 밀수출 사례를 발표하고 불법행위의 배후 실체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힘
 - *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화물이나 물품의 빈 곳에 밀수품을 함께 반입하는 수법으로, 세관의 감시를 피하는 대표적인 은닉 방식
- ☞ 추가로 홍콩·마카오 세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법 집행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구축을 가속화 함으로써 국가의 수출통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

핵심 키워드

핵심광물

밀수출

출처: 중국 상무부(5.9.), SCMP(5.10.), KOTRA 베이징무역관 해외시장뉴스(5.12.)

중국, 자동차 중국 자동차 부품업체, 태국 진출 급증… 일본 공급망 대체하나

- ☐ 중국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의 본격적인 태국 진출로 인해, 태국이 동남아시아 자동차 시장의 핵심 기지로 거듭나고 있음
 - ☞ '25년 기준, 중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태국 진출은 '17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BYD·만리장성·창안·네타 등 20개 이상의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태국에 진출해 현지 생산을 확대 중
 - ☞ 태국 동부경제회랑(EEC)* 지역에는 중국기업의 대규모 공장이 신설되고 있으며, 일례로 선와다 전자(Sunwoda Electronic)는 리튬 이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
 - * East Economic Corridor는 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경제개발정책으로, 촌부리·라용·차창사오 세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함
- ☐ 중국 업체들은 태국에서 별도의 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부품 납기를 단축하고,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장악하여 일본이 주도하던 기존 태국 자동차 산업 구조 변화를 야기

핵심 키워드

자동차

공급망

출처: 닛케이 아시아(5.9.), 신화망(新华网)(2.7.), 로이터('24.7.10.)

캐나다, 광물 호주 리오틴토社, 캐나다 알루미늄 정련소에서 갈륨 추출 성공

 호주 광산업체 리오틴토社가 미국의 인듐 코퍼레이션社와 협업하여 캐나다 퀘벡주의 알루미늄 정련소에서 보크사이트를 활용해 갈륨*을 추출하는 것에 성공(5.7.)

* 알루미늄 혹은 아연 정제과정에서 미량의 부산물로서 얻어지며, 고성능 레이더·전기차·태양광 패널 등 다양한 첨단산업에 쓰임.
현재 전 세계 갈륨의 90~98%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약 540톤), 북미 생산량은 전무했음

➡ 1단계 기술개발 후, 리오틴토社는 연간 생산량 3.5톤 규모의 갈륨 시범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상업 생산이 이루어지면 연간 생산량 40톤 규모로 공장을 확대하여 전 세계 갈륨의 5~10%를 생산할 예정

 앞서 '23.8월부 중국이 갈륨 수출을 규제하면서, 주요국들은 중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 갈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음

➡ 이번 성과로 인해 캐나다는 유의미한 양의 갈륨을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중국이 장악하고 있던 갈륨 공급망을 다변화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핵심 키워드

갈륨

공급망 다변화

출처: 로이터(5.7.), mining.com(5.7.)

칠레, 광물 중국, 칠레서 양극재 공장 건설 계획 철회

 중국 전기차 제조사 BYD는 칠레 북부 안토파가스타 지역에서 2.9억 달러(약 4천억 원) 규모의 리튬 인산철(LFP) 양극재 공장 건설을 계획했으나, 전면 중단을 발표(5.8.)

➡ 중국 배터리 기업 칭산그룹(Tsingshan Group)은 동 지역에서 2.33억 달러(약 3.3천억 원) 규모의 LFP 양극재 공장 건설 계획을 철회

* 리튬 가격은 '22년 최고점인 581.5 위안/kg에서 '25.5월 75.5 위안/kg으로 약 90% 하락했으며, 이는 공급과잉과 전기차 수요 둔화 현상이 원인임

➡ BYD, 칭산그룹 등의 중국기업들은 철회의 원인으로 ▲리튬 가격 급락으로 인한 투자 수익성 저하, ▲칠레 당국의 복잡한 허가 절차 및 행정적 불확실성을 언급

➡ 전문가들은 중국기업의 양극재 공장 건설 계획 철회로 인해 칠레 정부가 리튬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 추진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

 단, 칭산그룹은 성명을 통해 “칠레 리튬 다운스트림 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여전히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中 대사관도 “칠레 투자를 완전히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한 적 없다”라고 발언

핵심 키워드

리튬

전기차

출처: 로이터(5.8., 5.10.)

주간 이슈 포커스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미국, 희토류 미국, 최고 등급 네오디뮴 매장지 발견

US Critical Materials社は 몬태나주 Sheep Creek 광산에서 미국 내 최고 등급의 네오디뮴* 매장지를 발견했다고 발표(5.8.)

* 네오디뮴은 희토류에 속하는 원소로, 강력한 자성·고온 안정성·내구성 등의 특성이 있어 영구자석·전자기기·전기차 모터 등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임

- 이 광산에는 총 희토류 산화물 함량이 약 9%, 이중 네오디뮴의 농도는 평균 1.2%,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의 농도는 2.4%에 달하여 전략산업에 사용되는 희토류의 농도가 매우 높음
- 이로써, 미국이 국내에서 고등급 네오디뮴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가 마련됨

미국 네오디뮴 매장지 발견 더 알아보기

US Critical Materials가 보유한 Sheep Creek 광산은 발견된 매장지의 희토류 등급을 독립 분석기관인 Activation Laboratories*에서 검증받았다고 밝힘



-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본사를 둔 민간 희토류 및 전략 광물 탐사·개발 회사
- 미국 내 희토류 탐사·개발 분야에서 '국내 공급망 확보'를 목표로 하며, 미국 내 업계 평가에서 '국내 리더'로 언급
- 민간 투자와 자체 자금, 그리고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등과 같은 국립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형태로 사업을 추진 중

* Activation Laboratories :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본사를 둔 독립적인 민간 분석기관으로, 광물·지구화학 분야에서 공신력 있는 분석을 제공하며, 전 세계의 광산기업·정부·학계가 이를 공식적으로 활용

고등급 희토류 매장지의 기준 더 알아보기

- 희토류 광산의 등급은 총 희토류 산화물(TREO, Total Rare Earth Oxide) 함량과 개별 희토류 원소의 농도로 평가
 - 총 희토류 산화물(TREO) : TREO 1%(10,000ppm) 이상이면 경제적으로 채굴 가능성이 있는 매장지로 평가되며, TREO 5%(50,000ppm) 이상이면 우수한 고등급 매장지로 분류
 - 개별 희토류 원소 :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 합금의 경우 1%(10,000ppm) 이상 농도가 경제적 채굴의 기준이며, 미국의 Sheep Creek 광산은 2.4% 수준으로 미국 내 최고 기록

▶ (참고)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원자번호(화학기호)	60(Nd)	59(Pr)
외 형	은백색의 무른 금속	은회색의 무른 금속
산업적 사용	영구자석, 특수유리, 석유 정제 촉매	영구자석, 합금 첨가제, 착색제
자기적 특성	자기력이 매우 강해 영구자석의 핵심 원소	네오디뮴보다 자기력 약해 보조적 역할을 함

-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은 모두 란탄족 희토류 원소에 속하며, 자연에서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주로 모나자이트·바스타나이트 등 광물 속에 여러 희토류 원소들과 섞여 발견됨
- 두 원소는 주로 자연에서 함께 묻혀 있으며, 분리가 어려워 정제과정에서도 동시에 추출되는 경우가 많음

핵심 키워드

희토류

공급망

출처: US Critical Materials(5.8.), mining.com(5.8.), WebElements(5.13.)

◆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에너지 OPEC+ 증산 결정, 美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영향받아

- 5.3일, OPEC+는 6월에 원유 생산량을 하루 41.1만 배럴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 ▶ 지난달, OPEC+ 8개 주요 산유국은 회의에서 5월에 하루 산유량을 41.1만 배럴 늘리기로 합의했음
 - ▶ 블룸버그 등에 의하면, 이번 결정은 표면적으로 시장 펀더멘털이 건조하고 석유 재고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나, 실질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증산 요구가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출처: 블룸버그(5.3.), 뉴욕타임즈(5.3.), 로이터(5.5.)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5월 1주)

비철금속 | 中 금리인하 및 재고 감소로 동 가격↑, 中 전기차 생산 확대로 니켈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4월	전년비(%)	4.5주	5.1주	전주비(%)
동	9,147	9,308	1.8	9,326	9,471	1.6
니켈	16,812	15,479	△7.9	15,307	15,408	0.7
아연	2,779	2,785	0.2	2,593	2,588	△0.2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동) 美-英 무역협정 타결에 따라 글로벌 관세리스크가 완화된 가운데, 中 금리인하에 따른 유동성 확대 기대 및 주요 거래소 재고량 감소로 전기동 가격 상방 압력 발생
- (니켈) 中 금리인하 등 확장적 통화정책 추진, 주요 거래소의 재고량 감소로 인한 가격 상방 압력 발생
- ▶ 다만, 美 연준 금리동결에 따른 달러가치 상승 및 정련 니켈 공급과잉 우려로 인해 상기 상승 압력 일부 상쇄

철강 | 中 조강생산 규제 전망에 따른 원재료 수 둔화로 철광석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4월	전년비(%)	4.5주	5.1주	전주비(%)
연료탄	136.43	106.95	△21.6	98.84	104.09	5.3
원료탄	240.90	184.05	△23.6	191.00	190.50	△0.2
철광석	109.89	102.46	△6.8	98.86	98.44	△0.4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광)

- (유연탄) 인도 석탄 발전소 규제 완화에 따른 발전 용량 확대 전망으로 연료탄 가격 상방 압력 발생
- (철광석) 美 연준 금리동결에 따른 달러가치 상승 및 中 조강생산 규제 전망에 따른 원재료 수요 둔화 우려로 철광석 가격 하방 압력 발생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5월 1주)

희소금속 | 美-中 무역갈등으로 배터리 수요부진 및 中 업체의 공급 확대로 탄산리튬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4월	전년비(%)	4.5주	5.1주	전주비(%)
페로망간	1,201	1,108	△7.7	1,080	1,080	-
탄산리튬	12,526	10,131	△19.1	9,302	9,051	△2.7
수산화리튬	11,398	9,514	△16.5	9,137	9,151	0.1
코발트 (U\$/lb)	16.25	16.35	0.6	19.50	19.50	-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257,362	232,268	△9.8	242,500	260,000	7.2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55,684	60,525	8.7	58,817	60,200	2.4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탄산리튬) ▲美-中 무역갈등으로 인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수요의 불확실성, ▲中 리튬 생산 업체들의 공급량 확대 기조 유지로 인해 탄산리튬 가격 전주대비 소폭 하락

에너지 | 美-中 무역갈등 및 OPEC+ 증산 물량 확대 결정으로 인한 유가 ↓

품목	연평균 (U\$/bbl)			주간평균 (U\$/bbl)		
	'24년	'25년	전년비(U\$/bbl)	4.5주	5.1주	전주비(U\$/bbl)
두바이유	79.58	73.70	△5.88	64.00	61.76	△2.23
브렌트유	79.86	71.93	△7.92	63.33	61.59	△1.74
WTI	75.76	68.37	△7.38	59.64	58.55	△1.09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원유) 美-中 무역갈등으로 인한 세계 경기둔화 우려가 촉발한 석유 수요 감소에 따라 유가 하락

- 5.7일 美 연준의 4.25~4.50% 기준금리 동결 결정 또한 경기둔화 우려를 뒷받침하였으나, 5.8일 美-英 무역 협상 타결로 인해 시장 우려 일부 완화
- 5.3일 OPEC+의 6월 증산 물량 확대 결정으로 시장 내 공급과잉 가능성이 부각됨
- 5.7일 J.D. 밴스 美 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지정학적 갈등이 다소 완화되어 유가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

월간 공급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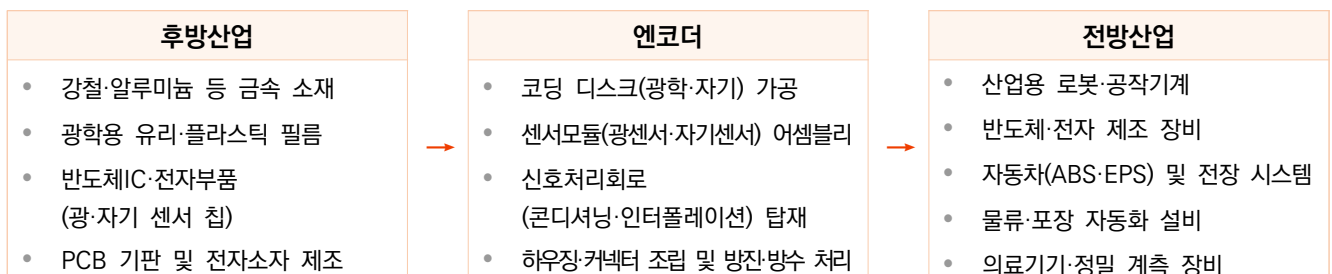
◆ 소재·부품·장비 품목 심층분석 - 엔코더

작성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엔코더 품목 개요

- ▶ 엔코더는 기계의 위치, 속도, 방향 정보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정밀 제어에 필수적인 센서 장치임
- ▶ 광학식 코딩 디스크와 센서(광센서·자기센서), 신호 처리부, 밀폐형 하우징으로 구성되어 고정밀·고분해능 제어를 지원함
- ▶ 산업용 로봇, 반도체·전자장비, 자동차 제어 시스템, 물류·포장 자동화 등 정밀 위치 제어가 필요한 분야에 널리 활용됨
- ▶ 기술 발전에 따라 해상도와 내구성이 향상되어, 연관 산업의 자동화 수준과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음

☐ 엔코더 가치사슬



☐ 엔코더 산업 동향

- ▶ 글로벌 엔코더 시장은 산업 자동화와 전기차,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 증가로 '25년 32억 4천만 달러에서 '33년 59억 3천만 달러까지 연평균 7.8% 성장할 전망이다
- ▶ 아·태 지역의 빠른 산업화와 정부의 자동화 지원 정책(예: 중국의 '제조 2025')에 힘입어 최대 시장으로 부상 중
- ▶ AI 기반 신호 처리와 스마트 커넥티비티(예: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예측 유지보수)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엔코더 제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음
- ▶ 소형화·경량화 트렌드에 따라 미니어처 및 컴팩트 엔코더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장비 내부 통합성 및 설치 유연성이 크게 향상됨
- ▶ 전기차·의료기기·로봇 등 신산업에서의 적용 확대와 맞춤형·고성능 엔코더 개발이 주요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음

📊 국내 수출액 추이 ('20~'24년)

🔍 '24년 엔코더의 수출액은 1,016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9.9% 증가

[표 1] 수출액 변화 추이(최근 5년)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금액(천 달러)	925	964	997	925	1,016

📊 국내 수입액 추이 ('20~'24년)

🔍 '24년 엔코더의 수입액은 1,112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대비 8.2% 증가

[표 2] 수입액 변화 추이(최근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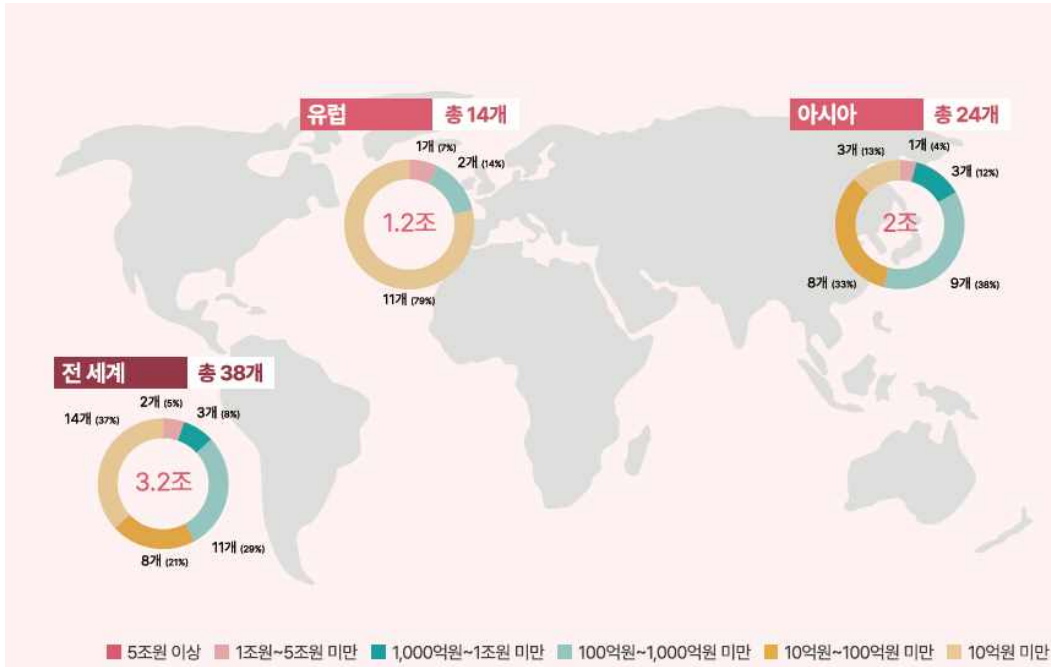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금액(천 달러)	943	1,091	1,154	1,027	1,112

📊 엔코더 기업 동향

	국내	국외
기업명	A사	(미국) Fortive Corporation
	B사	(미국) Vishay Intertechnology INC
	C사	(독일) Sick AG

- 🔍 (미국) Fortive Corporation은 '16년 Danaher에서 분사된 미국의 산업 기술 기업으로, Intelligent Operating Solutions, Precision Technologies, Advanced Healthcare Solutions 세 가지 전략적 사업 부문을 통해 모션 제어·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함. 엔코더 제품으로는 Hengstler-Dynapar 브랜드를 통해 AC58, AC59 등 광학식 절대형 엔코더와 고분해능 증분형 로터리 인코더, 브러시리스 프레임리스 리졸버 등을 공급함
- 🔍 (미국) Vishay Intertechnology INC는 1962년 Felix Zandman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말번에 설립했으며, '24년 매출은 약 29억 달러, 전 세계 직원 수는 약 22,700명임. 디스크리트 반도체(다이오드·MOSFET 등) 및 수동 전자부품(저항·커패시터·인덕터), 센서·인코더 등 광범위한 전자부품을 설계·제조함. Vishay의 Motion & Position 센서 제품군은 RAMK060 절대 자기 키트 인코더, MCB RAIK060 유도식 위치 센서, 그리고 Hall-effect 기반 비접촉식 선형·회전 센서 등이 있음
- 🔍 국내 A사는 2009년 설립, '17년 코스닥 상장, 본사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함. 서보드라이브, PLC, 모션 컨트롤러와 함께 엔코더를 자체 개발·생산하며 자동화 시스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함. 정전용량식 초소형 엔코더, 22bit 고분해능 광학식 엔코더, 23bit 중공형 정밀 광학 엔코더 등 다양한 제품군 보유함. 산업용 로봇, 공작기계, 물류 자동화 장비 등에 적용되며 고정밀 센서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함

▶ 엔코더 생산기업 현황



*출처: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24 GVC 산업분석 보고서

📊 엔코더 기술 동향

- ▶ 스마트 제조 및 로봇 자동화 확대에 따라, 산업용 엔코더의 고정밀화, 고속응답화, 네트워크 연동성 강화 등 기술 고도화가 가속화되는 추세
 - * 정부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정책 및 공정 디지털화 수요에 발맞춰, 정밀 위치 검출이 가능한 절대형 엔코더와 고해상도 증분형 엔코더 개발이 집중됨
- ▶ 최근 엔코더의 개발 방향은 소형화·경량화, 고분해능화(최대 24~27bit 이상), 고속화, 내환경성 강화(IP67 이상), 통신 표준화(EnDat, BiSS, EtherCAT 등)로 수렴. 특히 이더넷 기반 산업용 통신 프로토콜과의 실시간 연동성을 확보한 스마트 엔코더가 부각되고 있으며, 센서 내부 신호 처리의 디지털화와 인터폴레이션 회로 고도화가 병행
- ▶ 자기식, 정전용량식 등 비접촉형 방식이 내충격성·내오염성 측면에서 광학식의 한계를 보완하며 차세대 기술로 부상
- ▶ 산업용 로봇, 반도체 장비 등 정밀제어가 요구되는 장비에는 고속 연산 DSP, FPGA 내장형 스마트 엔코더 채택이 증가하고 있음
- ▶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기계 수요 확산과 함께, 모터 및 구동계통과의 통합화를 통한 에너지 최적화가 가능하도록 모듈형·복합 센서 기술과 연계한 융합형 엔코더 개발도 활성화 중
 - * 예지보전, 자가진단 기능이 포함된 지능형 엔코더는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공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며, 스마트팩토리의 핵심 구성요소로 자리잡고 있음

📚 출처 및 참고자료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24 GVC 산업분석 보고서 및 GIVC 시스템
- 언론, 보도자료 및 기업 홈페이지 정보 등

공급망 더 알아보기

◆ 美 에너지·기후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대내외 영향과 전망

작성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에너지연구실 참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포커스('25.3.4.)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적인 에너지·기후정책 변화가 미국 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변화에 대해 전망해 보자.

☐ 대내적 영향과 전망

⑤ (화석연료 확대) 석유·가스 생산 확대 가능성은 다양한 제약 요인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

- ▶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가스와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산업에 우호적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실질적인 투자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 필요
- ▶ 석유·가스 기업들이 시추 및 수압파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석유·가스 가격의 인상이 요구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인하를 통해 물가상승률을 낮추려는 목표와 완전히 대치됨
- ▶ 또한, 기업들이 생산 확대보다 비용 절감 및 자본 지출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 이는 트럼프 1기 당시보다 더욱 심화된 모습으로 평가됨

⑤ (알래스카 개발) 알래스카 지역의 석유·가스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지역의 자원개발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으며, 특히 440억 달러 규모의 Alaska LNG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 ▶ 그러나 동 프로젝트는 지난 10년 이상 동안 메이저 석유기업의 참여나 민간 자본조달에 실패한 사례로, 현실적인 투자유치 가능성은 희박
 - 현재 유일한 개발기업은 알래스카 주정부 소유 AGDC이며, 과거 참여했던 BP, ConocoPhillips, ExxonMobil 등 민간기업은 '16년 철수한 상태
 - 알래스카 지역은 자원 잠재력은 크지만, 개발 비용이 높고 인프라가 미비하며 규제 불확실성, 소송 위험 등으로 개발이 까다로운 지역
 -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 둔화와 공급과잉으로, 알래스카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가능성 낮음
- ▶ 다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석유·가스 구매자들의 미국산 LNG에 대한 장기계약 체결에 대한 관심 증대는 긍정적으로 보임

⑤ (재생에너지 투자 위축)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재생e 제조업계의 불확실성이 증대

- ▶ 바이든 前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정책 지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차, 풍력,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지원 폐지에 따라 재생e 제조업계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 일부 기업들은 청정에너지 제조업 투자의 대부분이 공화당 텃밭에 집중되어 있어 재생e 프로젝트의 전면 철회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 ▶ 하지만, IRA에 따른 지원이 유지된다고 할지라도,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신규 투자는 감소할 수 있음
- ⑤ **(역설적 피해 지역)** 청정에너지 관련 제조 투자 중 다수가 공화당 성향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공화당 텃밭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⑤ **(소비자 물가 상승)** 북미 지역의 무역갈등은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쳐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음
 - ▶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30일간 유예 조치를 시행
 -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은 보편관세, 상호관세에서 면제 또는 감면
 - ▶ 특히, 관세부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에너지와 자동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 **(에너지 가격 상승)**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원유 수입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관세부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자동차 가격 상승)** 북미 지역은 자동차 부품과 완성차의 공급망이 밀접하게 얽혀져 있어 관세부과 시 자동차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

□ 대외적 영향과 전망

- ⑤ **(무역갈등 우려)** 미국이 거의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로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 및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
 - ▶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10% 보편관세를 부과(25.4.5.)하고, 추가적인 상호관세를 예고하였으나, 대부분 국가에 대해 90일 유예 결정
 - ▶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 조치이지만, 유예 기간 후 주요 교역국에 추가 상호 관세가 예고되어 있어 글로벌 무역전쟁과 경제적 충격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
- ⑤ **(글로벌 기후 협력 약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 대응체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절차 추진 이후, 대부분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일부 국가는 미국의 탈퇴를 계기로 기후 협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기업인들은 기후변화 대응 지속을 재확인하였고, EU 집행위원장 폰데어라이엔은 미국의 결정과 상관없이 유럽은 기후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
 -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자국 역시 파리협정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고, 인도네시아 기후특사는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표출
 - ▶ COP30 의장인 안드레 도라고(André Corrêa do Lago)는 미국의 탈퇴가 세계 기후 협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
 - 미국의 이탈로 인해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비서구 국가들의 협상 주도권 강화가 예상되며, 이는 국제 기후 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음

공급망 소식통

① 인사이드 150호 구독자 만족도 설문조사 이벤트(~5.23.)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인사이드 150호

구독자 만족도 설문조사 이벤트

STEP 1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채널 구독!



STEP 2



설문조사 QR



① 카카오톡 '채널 메뉴' > '회원 등록' 클릭 후 정보 기입
회원 등록으로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드' 뉴스레터 등 매주 알찬 공급망 소식과 다양한 행사 소식을 받아보세요!

② 카카오톡 '채널 메뉴' > '이벤트 참여' 클릭하여 설문조사 참여

추첨을 통해 60분께 카페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② 2025 KOTRA 해외수주협의회 제51차 수요포럼(~5.16.)

작성 KOTRA 해외프로젝트실

2025 KOTRA 해외수주협의회 제51차 수요포럼

스마트 시티, 스마트 솔루션 해외진출 사례

순서	내용 및 연사(안)
15:10~15:40	해외건설과 스마트 기술의 현황 및 전망 - 김갑성 교수, 연세대학교
15:40~16:00	스마트팜 통합 솔루션 해외건설 진출 사례 - 전태병 대표, 만나씨이에이
16:00~16:20	인공지능 스마트팜 해외진출 전략 - 박규태 대표, 어벨브
16:10~16:40	디지털트윈 활용 PM 해외프로젝트 진출 사례 - 한미글로벌 김재현 전무

2025.5.21.(수)
15:00 - 16:40
KOTRA IKP 1층 세미나실

문의 : 공익표PM
02-3460-7484
consultants@kotra.or.kr



글로벌 경제지표 ['25.5.13일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구 분	'23말	'24말	'25.3말	5/9	5/12	5/13	전일비	전년말비
₩/US\$	1,288.00	1,472.50	1,472.90	1,400.00	1,402.40	1,416.00	0.97	△3.84
선물환(NDF, 1월물)	1,286.80	1,473.80	1,470.00	1,397.20	1,397.30	1,413.00	1.12	△4.13
₩/CNY	181.37	202.38	203.06	193.45	196.92	197.72	0.41	△2.30
₩/¥100	912.25	932.67	989.70	962.50	960.30	957.10	△0.33	2.62
¥/US\$	141.19	157.88	148.82	145.45	146.04	147.95	1.31	△6.29
US\$/EUR€	1.1105	1.0429	1.0832	1.1237	1.1226	1.1104	△1.09	6.47
CNY/US\$	7.1092	7.2992	7.2517	7.2461	7.2211	7.1918	△0.41	△1.47

* '24년 평균 환율: (₩/US\$) 1364.8원, (₩/¥100) 900.8원 / '25년 평균 환율('25.1.1일~현재): (₩/US\$) 1,446.6원, (₩/¥100) 966.4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4년 최저(해당일)	12/31('24년)	5/12	5/13	전일비	'24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70.53(11.18일)	75.94	63.91(5/9)	65.27	1.4	△5.0	△10.7
						2.1%	△7.2%	△14.1%
철광석		89.35(9.23일)	100.00	98.60(5/9)	101.25	2.7	11.9	1.3
						2.7%	13.3%	1.3%
비철 금속	구리	8,085.50(2.12일)	8,706.00	9,590.00	9,534.00	△56.0	1448.5	828.0
						△0.6%	17.9%	9.5%
	알루미늄	2,110.00(1.22일)	2,516.50	2,468.50	2,470.00	1.5	360.0	△46.5
						0.1%	17.1%	△1.8%
	니켈	14,965.00(12.19일)	15,100.00	15,485.00	15,475.00	△10.0	510.0	375.0
						△0.1%	3.4%	2.5%

반도체

구 분	'23말	'24.11말	'24.12말	'25.2말	'25.3말	5/8	5/9	5/12	5월(~12)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1.74	1.84	1.75	1.73	1.92	2.19	2.25	2.29	2.20
(%, YoY)	△14.8	10.8	0.5	△11.1	0.0	12.4	15.6	17.6	13.9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38	6.68	6.63	6.62	6.85	7.20	7.20	7.20	7.20
(%, YoY)	△2.3	4.0	3.9	3.2	7.0	12.6	12.6	12.6	12.7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12/29('23년)	12/27('24년)	4/25	4/30	5/9	전주비(4/30)	전년말비
SCFI	1759.57	2460.34	1347.84	1340.93	1345.17	0.3%	△45.3%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12/22('23년)	12/24('24년)	1/2	5/7	5/8	5/9	5/12	전주비(5/9)	전년말비
BDI	2094	997	1029	1374	1316	1299	1304	0.4%	30.8%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한국무역협회

gvc_monitoring@kotra.or.kr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피드백하러 가기

주관기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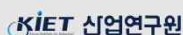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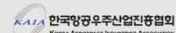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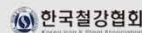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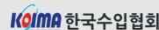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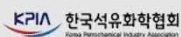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협력기관



본지의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